‘2024 공예주간’ 전주행사 성료

관람객 4만여명 참여 공예 X 오감 전시 등 진행

9월 공예인 40여명 참여 C-st 공예체험 행사 개최

‘2024 공예주간’ 전주행사가 지난 17~26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4만여 명의 관람객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한국전통문화전당 제공〉

‘2024 공예주간’ 전주행사가 지난 17~26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4만여 명의 관람객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따르면 이번 공예주간 행사 기간 동안 △공예×오감 전시 △공예생활 토크콘서트 △공예굿즈 팝업마켓 △공예생활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첫날인 17일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공예×오감 전시가 진행됐다. 이 전시는 전북무형문화재 최동식(거문고), 김혜미자(색지공예), 윤규상(지우산), 최종순(대금) 등 9명의 장인이 각각의 작품을 오감에 맞는 콘셉트로 구성해 갤러리의 오감을 자극했다.

이어 18일 오후 경기전 앞 야외특설무대에서는 무형문화재 제19호 소목장 故 조석진 장인의 제자인 권원덕 작가, 무형문화재 제29호 사기장 토광 장동국 명인이 참여하는 공예생활 토크콘서트 ‘손으로 만드는 인생이야기’가 펼쳐졌다.

제1부에서는 권 작가의 제자이자 목공동아리 나무숨결 이기옥 회장, 권 작가로부터 소목 짜맞춤을 배운 전을석 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이 패널로 참여, 세대를 뛰어넘는 공예의 가치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

콘서트 2부에서는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문화부기자와 이영욱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진흥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전통자기의 명맥을 이어온 장동국 명인의 48년 삶을 유쾌한 대화로 풀어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변경환 배첩장, 김종연 목조각장, 방화선 선자장 등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부채에 공예발전의 소망을 적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5~26일 전주수목원에서 진행된 ‘공예굿즈 팝업마켓’에서는 지역 공예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팝업마켓에서는 전시관 캐릭터인 ‘호사원’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한편 전당은 오는 9월 지역 공예인 40여 명이 참여하는 C-st(Craft-Street) 공예체험 행사를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한 달여간 진행할 예정이다. 또 6월 8일 단오와 추석인 9월 15일, 한글날인 10월 9일 등 3차례에 걸쳐 공예생활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영 원장은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 장인과 시민들의 가감 없는 토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형 공예마켓, 생활 속 공예를 지향한 이벤트 등 다양한 공예행사를 10일간 시민들과 함께했다”며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공예주간 외 행사’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작은 두 손으로 우리 국가유산 그려봐요’

국립전주박물관, 내달 24일 ‘어린이 국가유산 그리기 대회’ 참가자 모집 3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학교 단체 등 나눠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6월 24일 오후 전시실에서 ‘제32회 어린이 국가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은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학교 단체 및 개별 접수로 나눠 진행된다.

단체접수는 소속 학교 담당교사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참가 희망자를 작성한 후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공문서로 접수하면 된다.

또 개별접수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참가희망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출품작은 전문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빛나는 최우수상 1명을 비롯해 우수상, 특선, 입선 등을 선정해 부상과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그리기 대회는 도내 어린이들에게 국가유산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박물관이란 공간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올해는 작년 대비 수상자 비율을 대폭 늘려 좀 더 많은 참가자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입상작은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로비에 전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 또는 문화행사 담당자(063-220-106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송은섭 명예교수, 내달 2일 두 번째 개인전

30일까지 김제 금산 훈 아트 뮤지엄서 1~2부로 나눠 수채화 등 50여점 전시

우석대학교 송은섭(태권도학과) 명예교수가 6월 2~30일 김제시 금산면 훈 아트 뮤지엄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전에서 송 명예교수는 1부와 2부로 나눠 수채화·유화·문인화 등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송은섭 명예교수는 “부족하기만 한 재주로 연마해 온 취미의 한 면을 또다시 보이려 하니 부끄럽기만 하다”면서 “첫 전시 이후 그동안 습작해 온 흔적들을 한데 모아 이렇게 선보이는 과정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20년 정년을 한 송은섭 명예교수는 전북미술대전과 온고을대전 초대작가, 미술치료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미술대전 외 각종 미술대전에서 특선과 입선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한편 전시회 오프닝은 6월 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 ‘표현하는 동학, 함께하는 동학’ 미술전

(재)부안군문화재단과 백산고등학교가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에서 ‘표현하는 동학, 함께하는 동학’ 미술전을 개최한다.

‘표현하는 동학, 함께하는 동학’은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기점이었던 백산대회의 1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그 기반이 되었던 부안군 백산면의 백산고 재학생 60명이 참여했다. 전시에 앞서 백산고는 수업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알리고, 지역의 예술가 이세하 작가와 함께 그 의의를 미술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술전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수업에 참여한 60명의 학생들이 모둠별로 모여 12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시작일인 31일 오후 5시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내외빈과 백산고 재학생 60여 명이 모여 간단한 작품소개와 함께 개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4 예술인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전북문화관광재단, 오늘부터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만 50세 이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30일부터 ‘2024 예술인의료비(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광역재단 중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최초 시행해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인들에게 예술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내용은 선정된 예술인이 도내 협약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진행하면 재단에서 해당 기관에 직접 지원비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50명의 예술인에게 지원된다.

협약 병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의원, △(재)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5월 30일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5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며,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범위 내에서 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만, 2023년도 종합건강검진 지원 수혜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지자체 공무원 및 대학교수·교직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80%)을 초과한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전자우편 접수와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재단 누리집(jbc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1~743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10곳 모집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6월 3~14일까지 ‘2024 전북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1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지역 특색을 갖춘 관광사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사업체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모집 지역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두레 사업에 선정된 도내 3개 시군(전주시, 완주군, 임실군)을 제외한 11개 지역이다.

모집 대상은 숙박, 식음, 기념품, 주민여행사, 체험 등 관광 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3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로,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선발된 주민사업체는 5개월 동안 최대 500만원을 지원 받아 역량 강화,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